

日 강점기 쌀·공산품 생산 1위...인구 최다 전국 제1 지자체



1920년대 나주 영산포 나루터



1930년대 여수 오동도 방파제 축조공사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전남편)

3. 성장하는 전남의 기록들

일제강점기 전남은 그야말로 전국 최고·최대 지방자치단체였다. 쌀·면화 등 농산물과 방직물로 대표되는 공산품의 생산은 압도적이었고, 인구는 전국 어느 지자체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전남은 오히려 그 덕분에 일제의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기도 했다. 전남은 일제강점기 자신의 이 같은 성장을 다양한 서적을 발간하면서 외부에 알렸다. 광주일보는 이들 수집 권의 자료 중 1910년부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분석·정리했다.



1957년 순천 시가지

◇1911년 전라남도 해안도시의 상황=이 서적은 조선 주재 일본헌병대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최고의 해안을 갖고 풍부한 어족, 편리한 항만 교통을 자랑하는 전남 해안도시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사기록물이다. 조사는 한일강제합방 전인 1910년 4월27일부터 8월30일까지 이뤄졌다. 이로써 일제가 그만큼 전남의 잠재력은 물론 해안도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전남 연안의 연장은 553리(217.18km), 도서 부분은 1153리(452.81km) 등 모두 1706리(670km)로, 한반도 전체 연안 4395리(1726km)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관할 도서 수 역시 유인도 370곳, 무인도 1377곳 등 모두 1747개 섬이 있어 한반도 전체 3009곳의 약 58%에 달했다.

먼저 목포항이다. 목포항은 갯벌과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남해안에서 유일하게 '좋은 항구'였다. 영산강 하구에서 서남 방향으로 무안반도 돌출부에 이르는 목포항의 수심은 17~27m로 큰 선박도 출입이 가능했다. 범성포는 영광 하구의 우측 백옥산 서쪽에 있으며 만이 협소해 작은 기선의 출입이 가능한 물자집산지라고 적고 있다. 이 외에도 진도, 강진, 보성, 여주, 광양, 해남 등의 만은 물론 자은, 암태, 팔금, 하의, 장산, 도초, 비금 등 섬들의 수심과 정박 가능 여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여수반도의 남쪽 돌출부에 있는 여수는 목포와 80리(31.42km) 떨어져 있어 일본과의 중간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래 촉망받는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어족이 풍부해 한국 전체의 어업 생산량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전남에서 생산되며 당시 일제의 농상공부의 조사에 의하면 생산액은 약 1154만7000원(어류는 약 713만9000원, 해조류 40만8000원 등)에 달했다. 김의 경우 조선 전체 생산액의 5분의 2를 차지했다. 양식지는 여자만과 영산강 입구에 있었으며, 각각 꼬막과 굴을 양식했다.

◇1923년 쌀의 전라남도=이 서적은 1923년 4월 전남농회가 편찬했다. 한글과 일본어로 작성됐는데, 당시 전남은 한반도의 쌀 생산액의 4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쌀은 전남의 대표상품이었고, 생산규모는 1920년 184만6922석에서 1921년 201만2195석, 1922년 221만여 석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평균 기온 13도~13도5분, 강수량 109~126일, 강수량 1037.0~1135.2mm의 기후에 질 높은 토양 등 천혜의 자연조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남은 전국 농경지 면적의 약 9.5%에 해당했으며, 산악지역, 간척지 등 앞으로 개간해야 할 경지도 상당했다. 농가는 33만2826호였고, 이 가운데 자작농 18%, 자작 겸 소작농 45%, 소작농 35% 등의 비율을 차지했다. 농사에 반드시 필요했던 소는 11만9955두였다.

◇1921년 도세개요=이 책은 1920년 말 조사가 근거해 전남도가 작성했다. 전남의 행정구역은 <전남편 2>에서 언급한 것처럼 폐합 과정을 거쳐 1부21군1도269면 3085정동리가 됐다. 1920년 10월1일 임시 호구조사 결과 195만7870명(38만8028호)이 전남에 거주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 인구는 193만275명(38만863호), 일본인은 2만6713명(6939호), 그 외 외국인 819명(226호)이었다. 4

■해안도시

1747개의 섬...수산물 생산 전국 20%

■日·中 중간기지 목포항 '물자 집산지'

■쌀

농경지 전국 9.5% 33만2826호 경작

천혜의 조건...1923년 220만석 생산

■도세

1919년 총 생산액 2억5000만원

철도 등 개통되며 산업전반 흥성

■교육

광주사범학교 등 1924년 242개교

한국인 학생 4만6천명...서당 급감

년 전인 1916년 말에 비해 약 10만명(3만호)이 증가한 것으로, 1918년에는 유행성 감기가 유행하면서 무려 5399명(한국인 5337명, 일본인 6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1919년 3·1 운동의 여파로 독립에 대한 여망이 높아지면서 일제는 민심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전남에서는 각종 강연회가 열려 독립사상을 전파하고 한글신문들이 이를 보도했고, 일본인에 대한 저항의식이 높아졌다. 무안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호신용 총기를 공동구입할 정도였고, 이에 일제는 독립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선동적 신문 발행 금지, 일본인 경찰 및 헌병 대폭 증강에 나섰다. 1920년 전남에 거주하는 경찰은 모두 1805명(한국인 770명, 일본인 1035명)으로, 지난 1919년 이전 1123명(한국인 650명, 일본인 473명), 지난 1919년 이후 1333명(한국인 673명, 일본인 670명) 등에서 2년도 안 돼 경찰 수가 682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경찰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시국범죄는 1920년 상반기 24건, 하반기 22건 등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해운·철도·도로 사정을 살펴보자. 일단 호남의 핵심항구였던 목포항은 인천과 부산의 중간에 자리하고 중국 상해와 가장 근접해 있어 사람 및 물자의 거래가 빈번했다. 목포에서 부산, 제주, 인천, 다도해로 향하는 것은 물론 부근 주요 도시를 오가는 선박이 항시 대기중이었다. 철도는 호남선에서 분기해 부산 방면으로 연결하는 것을 중시했다. 호남선 송정리에서 분기해 광주, 담양, 곡성, 구례, 경남 하동, 진주 등을 거쳐 마산에 이르는 선을 구상하고 1922년 송정리~광주~담양 구간이 개통 예정이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호남선 영산포역에서 영암, 강진, 장흥, 보성을 거쳐 순천에 이르러 여기서 다시 여수, 광양을 거쳐 경남 하동에 이르는 선과 강진에서 해남에 이르는 선 등이 속속 논의되고 있었다.

1919년 도내 총생산액은 2억5000만원에 달해 1910년 2800만원에서 8.7배 이상 증가했고, 쌀은 110만석에서 220만석으로 2배, 보리는 79만석에서 134만석으로 1.7배, 면은 63만근에서 4595만근으로 73배 등의 성장세를 보였다.

◇1925년 도세일반=1924년 말 현재 전남에는 광주사범학교 등 242개교의 교육시설이 자리해 한국인 학생 4만5605명, 일본인 학생 5260명 등 모두 5만865명이 근대교육을 받고 있었다. 서당은 1621곳으로 4년 전에 비해 769곳이 급감했고 학생 수는 2만6032명이었다. 무역 수출입 총액이 7045만4683원이었고 이 가운데 목포항 2129만2726원을 차지했다. 공장은 333개소가 있었으며, 총 자본금은 1242만82엔, 6879명(한국인 6393명, 일본인 444명, 외국인 42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1939년 전남의 교육과 종교=1938년 전남의 행정구역은 2부1도21군8읍22개면이 된다. 인구는 248만 여명으로 1방리(사방이 1리)에 약 2750명이 거주, 인구밀도는 전국 2위였다. 천혜의 자연조건과 호남선, 전라선, 경전서부선, 광주선 등이 개통되면서 산업이 흥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분석이다. 일본인 대상 공립학교는 1898년 1월11일 창립된 목포산수심상고등학교(현 목포유달초등학교), 한국인 대상 공립학교는 1906년 11월 광주공립보통학교(현 광주서석초등학교)가 최초였다. 학교는 목포부 3개교, 광주부 3개교 등 288개교가 있었다.

서당은 574곳, 학생 수는 1만7580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는 도내 추정 전체 학령아동수 32만5600명의 5.3%, 한국인 학령아동수 11만3729명의 15.4%에 해당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과죽이**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광역시** **맛집**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